

# 영농철 외국인근로자 1230명 확보

### 전남도 계절근로자 배정

### 전년보다 3.6배 늘어

### 농번기 이전 입국 인력난 해소

전남도가 봄철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를 확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14개 시·군 433농어가 1230명으로 확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89

개 시·군에 1만23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343명)의 3.6배 규모다.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계절근로제가 올해 대폭 개선·시행돼 소규모 농가에서도 1주일 단위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배정 인원은 완도가 459명으로 가장 많고, 해남(134명), 담양(134명), 함평(111명), 진도(104명), 영암(7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력 배정을 받은 시·군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선도적으로 베트남, 네팔, 필리핀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한 해남, 고흥, 무안 등 4개 군은 해외 지자체와 함께 계절근로자 선발 등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주, 강진 등 4개 시·군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4월 입국을 추진하는 등 봄철 농번기

고용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 담양, 고흥, 해남, 영암, 무안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시 코로나19 확진 여부 확인 소요 비용을 군비로 부담해 고용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밖에 곡성, 장성, 진도는 유학생이나 방문취업, 문화예술·구직 체류 자격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가 고용 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농가 중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기회를 잡으면 된다. 시·군 담당부서의 행정지원을 받아 오는 5-6월께 법무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자가격리 및 입국제한조치 완화 움직임을 보여 계절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운영 등 안정적인 인력확보 기반을 구축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산 기능성 뱀장어 베트남 첫 수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기술지원을 받은 도내 뱀장어양식업체가 최근 전남산 기능성 뱀장어를 베트남에 첫 수출했다. <사진> 지난해 1월부터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버섯 추출 유산균 활용 양식기술을 양식어가에 기술지도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취득해 고품질 뱀장어를 생산한데 따른 것이다. 수출 길에 오른 뱀장어는 1000팩(300kg)

규모다. 베트남의 고급식당에서 직접 판매하고 일부는 도매상을 통해 유통할 계획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뱀장어 수출을 통해 국내 시장 수급 안정과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됐다"며 "전남산 뱀장어의 고급 브랜드화를 위해 다양한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해 전남 수산물이 수출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녹색에너지원, 취업패키지 청년 근로자 모집

### 80명...25일까지 신청 접수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전남지역 청년들의 도내 기업 취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패키지에 참여할 청년 근로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총사업비 25억원인 취업패키지는 전남소재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매칭 후 3주간의 인성 및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취업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정규직 전환 등 고용승제도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 39세 이하의 전남 도내

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예정인 미취업 청년이며 80명을 모집하게 된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졸업 또는 상반기 졸업 예정자는 지원 가능하며 대학 재학생, 휴학생, 대학 진학 예정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되면 인건비, 활동 수당, 사전 직무교육 훈련비 등이 지급되고, 타 지역 이주 청년 선착순 20명에게는 주거비로 1인당 최대 30만원도 6개월 동안 추가 지원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난 8일 전남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초기술 훈련장 발급, 직무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 일자리 체험 제공 및 고용기업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으로 자립을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4단계(60시간 이상)를 이수한 청소년에게 훈련참여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농업기술원

### 농기계 교육생 30명 모집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4일 "도내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활용 및 점검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달 21부터 10일간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과정은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 승용이앙기와 굴착기, 콤팩트 등 농업기계 기종별 작동원리, 점검 정비기술과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강사가 나서 기초이론과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을 병행한다.

전남농업기술원 유휴농업교육과장은 "기능 인구가 늘면서 농업기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값비싼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 공익직불금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하세요

### 전남도, 비대면 온라인 접수

전남도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비대면 온라인 접수는 지난해 접수 개시일보다 2주 앞서 시작해 오는 4월 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가 농업인이다. 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기존 방식대로 4-5월 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온라인 접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별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전남지역 대상자 10만여 명에겐 오는 18일 보

낼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본문에 표기된 온라인 주소로 눌러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이름·주민번호·휴대폰 인증과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과정을 거쳐 등록대상 농업인, 농지, 직불유형, 예상금액을 안내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데도 이 기간 접수하지 못했거나,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 변경등록할 수 있다.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요건 및 준수·유 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중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은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수출상 대상 '제일'...2600만달러 수출

### 영창중공업·알로에음료 등 우수상

###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3곳 감사패

전남도가 14일 제17회 전남도 수출상 시상식을 열어 자동차 설비 2600만 달러를 수출한 (주)제일 등 수출 확대에 지역경제와 수출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격려했다. 시상식에서는 (주)제일이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해양교량박스 1900만 달러를 수출한 영창중공업(주)과 알로에음료 700만 달러를 수출한 (주)에이티엔지가 우수상을 뒀다.

(주)제일은 1985년 박리를 전문으로 하는 제일화학으로 창립해, 1990년 담양공장을 준공해 본사를 이전했다. 이후 철구조물과 자동차 전문 설비제작 분야로 확장해 최근 자동차 생산설비 시스템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수출하

는 등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김과 전복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주)대창식품, (주)해보, 다시마전복수산 영어조합법인, 완도다 어업회사법인(주) 등 4개 사가 장려상을 받았다.

수출 유공자로 이노영 (주)에이티엔지 과장, 김희수 데이앤바이오(주) 부장, 김지혜 좋은영농조합법인 과장, 장성규 (주)네시피에프앤비 본부장, 하보아 (재)전남테크노파크 연구원, 박은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임, 김묘정 곡성군 주무관, 김홍순 여주시 주무관이 영예를 안았다.

정종환 (주)판아시아 대표, 리차드 김 마이힐푸드(주) 대표, 라이언 장 크리에이티브 팀장은 전남 우수 농수산식품을 수입해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